

## 다양한 경험 통해 공동체 학습·리더십 키운다

### 전북대, 모험생 양성 프로그램 '레지던셜 칼리지' 본격 시동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전공지식뿐 아니라 인성과 공동체 의식까지 갖춘 '모험생' 양성을 위해 국립대 최초로 도입한 레지던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 이하 RC)가 보다 내실화 된 프로그램으로 올해 본격 시작했다.

전북대 큰사람교육개발원(원장 김동숙)은 지난 6일 오후 진수당 기인홀에서 RC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모험인재 양성 프로그램 시작을 알렸다.

올해 RC에 참여하는 학생은 모두 526명. 이 학생들은 낮에는 학과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저녁 및 휴일에는 기숙사에서 예술과 소통, 친환경, 휴머니티, 스포츠, 벤처 분야 등 6개 영역별로 나뉘어 다양한 경험을 체득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학습과 문제해결 능력, 리더십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스킬 봉사, 문화적 역량 등을 키워간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이남호 총장을 비롯하여 본부 주요 보직자가 참석하여 RC의 성공적인 안착과 2018년도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이남호 총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모범 생을 넘어 모험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RC를 통해 학생뿐 아니라 대학 모두가 한 차원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북대 큰사람교육개발원은 지난 6일 오후 진수당 기인홀에서 RC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모험인재 양성 프로그램 시작을 알렸다.

한편, 레지던셜 칼리지는 전북대가 모험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최초로 도입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그간 1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상민기자



### 순찰경찰, 내고를 안전지킴이와 협력치안강화 다짐

순찰경찰서(서장 김태형)는 8일 서장실에서 이번 달부터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내고를 안전지킴이 연합대장(조로금), 순회대장과 차단회를 가졌다.

이 날 차단회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내고를 안전지킴이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근무요령 및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순찰경찰서 내고를 안전지킴이는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9개월간 11개 읍면 101명의 내고를 안전지킴이들이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 치안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조로금 연합대장은 "이렇게 경찰서에서 자리를 마련해 격려를 해주어 감사드리고 올 한해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지역 치안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김태형 서장은 "올 한해도 내고를 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은 파출소와 협력해 범죄예방 순찰 및 캠페인 등으로 경찰 협력치안에 큰 역할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신 만큼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활동 중 범죄취약자가 있으면 경찰과 공유하여 협력치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군산소방서, 전 직원 대상 3월 직장교육훈련

군산소방서는 8일 군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근무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 중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직장교육훈련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균절을 위한 음주운전 균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 안전교육과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교육, 예방업무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업무 및 부정 청탁 행위 및 음주운전 균절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군산소방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무주군 선관위, 읍·면 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우)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8일 무주군 전통문화의 집에서 무주군 6개 읍·면 이장 15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 내용은 ▲이장 등의 선거운동제한 ▲각종 제한·금지 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물의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특히 지역사회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관내 이장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했다.

무주군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법 안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투명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국립임실험국원, 공직복무관리·청렴실천 결의대회

국립임실험국원(원장 유효석)은 7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공직복무관리와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무식은 국립묘지 의견단(16명)과 환경관리원(9명) 등에 임명장 수여, 국가보훈처장 보훈관련 신년사 대독, 보훈공무원 시상 및 청렴서약을 통하여 보훈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국립묘지 새 가족이 함께하였다.



/박종덕 원장은 따뜻한 보훈 열린 국립묘지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는 물론 국가보훈처 보훈공직자로서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 직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설=진홍영기자

### 순창군 백은장학회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

순창군 백은장학회(이사장 설동일)에서 올해 쌍치면 관내 출신 중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3명을 선발해 장학금 3백만원씩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백은장학회는 순창군 쌍치면 출신 백은 김상열 회장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2억원을 기탁하면서 설립된 장학회다. 김상열 회장은 고향을 떠나서도 매년 고향을 위해 장학금 기탁은 물론 훈장재 건립부지 기부, 면민회 기금 회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해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백은장학회는 설립 이후 쌍치면 영광정 벚꽃나무식재축전위원회에서 7천만원을 장학회에 기탁하면서 2억 7천만원의 기금이 모금되어 2017년부터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은장학회 설립일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면민들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고향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맘껏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세대의 뜻"이라며 밝히며 학생들에게도 "고향에서 받은 따뜻한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지역의 반듯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